

이슈

2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2817호

내가 왜 떴게?

대타 기용한 감독, 매우 칭찬해



박호산

●**박호산** : tvN 수목드라마 ‘나의 아저씨’ 기자간담회에서 박호산이 ‘오달수 대체 투입’에 대해 언급했다. 박호산이 맡은 역은 삼형제 중 첫째인 박상훈 역이다. 알려져 있듯 이 역은 원래 오달수가 맡기로 되어 있다가 성추문에 휩싸이며 박호산으로 대체됐다. 박호산은 “아주 바람직한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누리꾼들 역시 “매우 잘 어울린다”, “신의 캐스팅”, “보는데 편안한 마음이 들더라”며 박호산의 연기를 칭찬했다. 감독이 대타를 내보내고 희생 플라이 사인을 냈는데 장외홈런을 쳐버렸다.

헐! 월 임대료가 1억 2천만원?



이병헌

●**이병헌** : 이병헌이 아닌, 이병헌 패밀리 얘기이다. 부동산업계에서 이병헌의 모친이 운영하는 회사(프로젝트비)가 지난달 가족법인 명의로 서울 양평동의 빌딩을 260억원에 매입했다는 것. 이 건물은 현재 보증금 42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1억2093억원이다. 지하철 9호선 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워낙보니 슬그머니 짜증이 난다. 이런 연예기사가 아니라 부동산기사가 아닙니까!

자꾸 보니 조각미남이네



컴버배치

●**베네딕트 컴버배치** : 영화 ‘어벤저스:인피니티 워’에 출연한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영화 홍보차 내한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컴버배치는 한국 팬들의 열띤 반응에 놀란 모습. 환영하는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사인을 해주는 등 훈훈한 팬 서비스가 돋보였다고 한다. “뭐가 잘 생겼다는 거지? 하는 분들은 설록을 보세요. 이 분이 조각으로 보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댓글에 공감 꾸욱!

우리 출국세 2만원씩 받을까

●**일본 1만원** : 내년 1월부터는 일본에 갔다 돌아올 때 1만원을 내야 한다. 일본 참의원(상원)이 1인당 1000엔의 출국세(국제관광객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 등을 앞두고 관광진흥정책 재원확보를 위함이란단. 입국에서 직접 만원씩 걷는 것은 아니고 항공권 구입 가격 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뭐 다 좋은데, 왜 자국 올림픽 재원마련을 외국인들 주머니에서….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류현진 오كل랜드전 6이닝 8K 무실점 시즌 첫 승 | 투구내용 분석해 보니…

예리한 커터 만큼 과감한 몸쪽 승부도 빛났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11일(한국시간)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오كل랜드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힘껏 볼을 뿌리고 있다.

18개 아웃카운트 중 삼진·망볼 78%…출루도 100% 정민철 해설위원 “겉잡지 않는 과감한 정면승부 적중”

LA 다저스 류현진(31)이 완벽한 팔색조로 거듭났다. 빠른 공과 컷패스트볼(커터), 커브, 체인지업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 그 결과 무결점 투구로 올 시즌 첫 승에 입맞췄다. 류현진은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오كل랜드와 홈경기에 선발등판해 6이닝 동안 90구를 던지며 1안타 1볼넷 8삼진 무실점의 깔끔한 투구로 팀의 4-0 승리를 이끌고 시즌 첫 승을 따냈다. 방어율도 종전 7.36에서 2.79(9.2이닝 3자책점)로 끌어내렸다. 10일까지 메이저리그(MLB) 30개팀 중 팀 타율 6위(0.253)였던 오كل랜드 타선을 꽁꽁 묶어 의미는 더 컸다.	
구종	투구수
직구	36
컷패스트볼(커터)	25
커브	15
체인지업	13
슬라이더	1
합계	90

●**단 하나의 외야 뜬공이 시사하는 것**

류현진이 잡아낸 18개의 아웃카운트 가운데 삼진(8개)과 망볼(6개)의 비율이 무려 77.8%(14개)에 달했다. 뜬공은 4개였고, 이 가운데 외야를 향한 타구는 1회 선두타자 마커스 세미언의 좌익수 뜬공이 유일했다. 후속타자 맷 채프먼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에는 5회 2사 후 스티브 피스코티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할 때까지 13개의 아웃카운트 중 12개를 삼진과 망볼로 잡아냈을 정도로 안정감이 넘쳤다. 다저스 타선은 1회 크리스 테일러와 코리 시거의 연속타지움런, 6회 맷 켈프의 솔로홈런과 로건 포사이드의 적시타로 4점을 지원하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7~9회 마운드에 오른 토니 싱그라니~로스 스트리플링~켄리 젠슨도 3이닝을 실점 없이 틀어막고 류현진의 첫 승을 완성했다. 류현진 입장에서 모든 게 뜻대로 풀린 날이었다. 2회 첫 타석에서 볼넷,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좌전안타를 터트리며 타석에서도 100% 출루에 성공한 것은 덤이었다.

●**예리한 커터, 얼마나 위력적이었나**

이날 류현진의 빠른 공(36개) 최고구속은 147.8km(91.9마일)까지 찍혔다. 여기에 평균구속이 140km까지 나온 커터(25개)와 커브(15개), 체인지업(13개), 슬라이더(1개)를 곁들이니 그 위력이 배가됐다. 8개의 삼진을 속아낸 결정구는 커터 5개와 빠른 공, 커브, 체인지업이 각각 한 개였다. 2스트라이크까지 빠른 공을 마음껏 던지고, 자신 있는 세 가지 변화구로 상대 타자를 요리한 것이다. 2회에는 우타자 조너선 루크로이와 스티브 피스코티를 상대로 커터를 던져 망볼을 유도했는데, 빠른 공을 던질 때와 같은 팔 스윙으로 타자의 배트 손잡이 부분에 맞혀 집는 전략이 완벽하게 통했다. 우타자를 상대로할 때 커터로 스트라이크존의 바깥쪽을 공략해 삼진을 유도하는 투구도 돋보였지만, 과감한 몸쪽 승부를 펼쳐며 망볼을 유도한 장면도 백미였다. MBC스포츠플러스+ 정민철 해설위원은 “오كل랜드 타자들이 빠른 공을 노릴 때 커터로 공략한 것이 효과를 봤다. 커터의 각도 예리했다”고 분석했다.

●**흔들리던 팀 내 위상…더 의미있는 오كل랜드전 승리**

류현진은 올 시즌 첫 등판인 3일 애리조나 원정에서 3.2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다. 무엇보다 5개의 볼넷을 허용한 부분을 스스로 납득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아쉬움을 상쇄한 점도 이번 등판에서 얻은 수확이다. 정민철 위원은 “스스로도 많은 볼넷을 허용한 점이 가장 기분 나쁘다고 했다”며 “오كل랜드가 우타자 위주의 타선을 짰는데, 류현진이 자신 있게 몸쪽을 공략했다. 늘 잘해왔던 것을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긴 결과”라고 밝혔다. 류현진은 오كل랜드전에 앞서 5선발 자리를 위협받는 등 팀 내 위상이 불안했던 터라 이번 등판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그래서 더 의미있게 다가온 시즌 첫 승리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작은거인이란 별명이 있는데, 난 그냥 작은 거다 하하!”

▶**데뷔 50주년, 조용필을 만나다…1면에서 이어집니다**

-요즘 관심 있게 지켜본 후배가 있다.
“누구라고 이야기할 순 없다. 어떤 한 가수가 유명하다면, 분명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아이돌 그룹도 마찬가지다. 방탄소년단이나 엑소, 빅뱅 노래도 찾아 듣는다. 노래를 잘 하든가, 잘생겼든가, 매력이 넘치더라. 제가 지금 활동했으면 절대 안됐다. 일찍 태어나서 음악을 해서 다행이다. ‘비주얼’로는 내가 빠지지 않나. 키고 작고, 하하! 별명 중에 ‘작은 거인’이 있는데 나는 그냥 작은 거다.”

-50주년 앨범이나 20집은 언제쯤 발표될까.

“20집은 꼭 내야하는 앨범이라 온 신경이 집중됐다. 더 잘해야 한다는 욕심이 과했던 것이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많아서 6~7곡 완성됐다. 5월 50주년 투어 때문에 작업을 모두 중단했다. 올해 앨범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걸 동시에 못하는 성격이다.”

-평양공연을 다녀왔는데. (조용필은 감기·후두염을 앓았다.)

“자책을 많이 했다. 몸 상태가 최악이었다. 의료진도 따라 갔지만 잘 먹지도 못했다. 최악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북한 음악이 우리와 많이 다르기에 우리 음악을 쉽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궁

금했다.”

-평소 목이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

“소식 하는 편이다. 오후 6시 이후로는 전혀 안 먹는다. 술은 몇 달에 한번 마신다. 목소리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 다만 어느 부분에서 취약한지, 미리 파악해서 노력하는 편이다. 나이가 들면 중저음에서 힘이 빠진다. 중저음만 골라서 중점적으로 연습한다.”

-50년간 한결같이 음악을 한 비결은.

“처음 음악을 접하고 인식한 게 5~6세 때다. 동네 어른의 하모니카 연주를 듣고 충격 받아, 그날 아버지한테 하모니카를 사달라고 했다. ‘푸른 하늘 은하수’를 부른 게 시작이었다. 취미로 하려 했지만,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고 1968년 미8군에서 연주하다보니 무대에 매력을 느꼈다. 음악을 연구하다 새로운 걸 발견하고 충격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죽을 때까지 배우다 끝날 것 같다.”

-‘바운스’ 앨범을 내놓을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목탄을 들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저를 좋아하고 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평생 제 노래만 듣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만두면 배신감 들지 않겠나. 허락되는 날까지 음악을 계속할 거다.”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오타니 안 부럽다!